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과 장 정성창 사무관 김경난	042-481-8172 042-481-518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19년 1월 24일(목) 배포(09:00) 즉시 보도 바랍니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4일 오전10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제8차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된 숭실대(총장 황준성), 안양대(총장 직무대행 겸 부총장 정은구)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특허청과 각 대학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자립적인 지식재산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정부가 대학에 지식재산 전문가를 지원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지식재산 교육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2년도에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신규대학을 선정·지원해 왔다.

올해로 8년차를 맞는 본 사업은 작년(‘18년) 기준으로 1,410개의 지식재산 강좌를 개설하여 총 45,178명의 대학(원)생을 교육했는데, 이는

사업 초기('12년) 대비 지식재산 강좌 17배, 교육인원은 13배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올해까지 총 23개 대학과 협력하여 16만 명이 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 등 대학 지식재산 교육 확산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세우는 IP-R&D 교육*,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재로 이공계·경영·디자인 등 다양한 전공을 융합하는 교육*을 하는 등 실용성 높은 지식재산 교육방법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특허기본이론, 특허분석방법, 창업과 특허 등과 같이 연속성 있는 지식재산 교과로 구성된 인증트랙** 등을 도입·운영함으로써 대학의 자발적인 지식재산 교육 체계 구축에 기여해왔다.

* IP-R&D 교육('17~'18) : 424개 강좌 14,202명 수강

IP기반 다학제간 융합교육('16~'18) : 292개 강좌, 9,831명 수강

** 일정 학점 이상 지식재산 교육을 이수하면 졸업장 등에 명시하거나 인증서 수여
(연세대, 경희대, 동국대, 국민대, 전남대, 제주대, 대전대, 목원대 등 8개 대학 참여)

이번 협약으로 숭실대는 트랙형 지식재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식재산을 활용한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식재산권과 기술창업을 융합한 실전형 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안양대는 온·오프라인 지식재산 교육과정과 함께 지식재산 인증트랙인 'Ari-IP 인증제*'를 운영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창업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 교육과 창업교육을 연계하여 '지식재산개론' 등 기초수준의 이론교육에서 기술이전·창업까지 이어지는 교육과정 제공, 이수 시 인증서 수여

박원주 특허청장은 “대학이 고품질 특허기술을 창출하고 보유 특허기술에 기반 한 스타트업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고 미래 혁신인재를 양성해야한다”고 밝혔다.